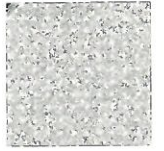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14호 2020년 11월 29일(나해)

대림 제1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화답 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름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

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3-9

복음환호 송 | 시편 85(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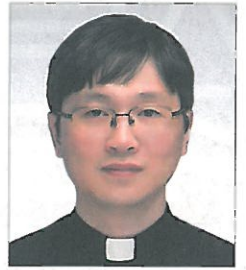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르 13,33-37

영성체 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부원장

| 주님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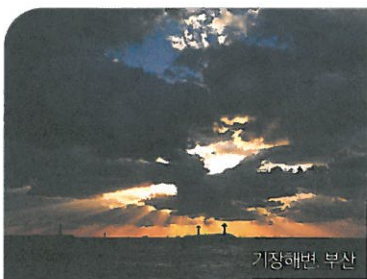
어느덧 대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되돌아보니 올해도 기우고 때워 가며 살았다는 생각에 슬쩍 감상적으로 변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 문득 오늘 제1독서의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이사 64,7)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작품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영원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지상에서 삼십삼 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에 대한 희망의 시기입니다.

희망은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며, 우리 믿음에 활력을 줍니다. 구원경륜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일상의 일까지, 주님의 사랑을 찾을 곳은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 당신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지런히 감사할 것들을 찾는 모든 노력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작가이신 하느님과 작품인 우리가 상사상애하기에,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희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남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인이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고, 전례도 주님과 사랑의 합일에

대한 기대 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삶의 끝에 약속된 그 삶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를 기꺼이 행동하게 하고 교회의 생활에 참여하도록 복돋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들고 싶어 주인이 올 때만 계산하고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는 종들과는 다릅니다. 주인에 대한 희망이 없는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이 그저 귀찮을 따름입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에서 반짝 일하는 척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편한 삶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시간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허락된 시간을 삶의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내 시간이 끝나는 공포의 ‘죽음’이 아니라 맡기신 시간을 잘 돌려드린 기쁨의 ‘완성’입니다.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문지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어있도록 말씀하시는 데에서 이 희망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향주삼덕 안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 희망은 얼마나 값어치가 큰 보배로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기장해변 부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마르 13,32-33)



두터운 구름을 뚫고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는 바닷가. 세상의 유형무형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 보시니 참 좋다.’ 하신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이듯 평화롭고 고요한 이 아름다운 아침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눈부신 환희입니다. 늘 깨어 열린 마음과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 첫 마음으로...

11월은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위로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튀구는 낙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추의 계절인 듯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통째로 바뀌고 아쉬움 속 잘못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심의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때이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은총의 희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한국평협에서도 희년을 맞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희년의 삶을 살자는 취지의 '제자리 찾기 운동(하느님 백성답게, 모두 제자리로)'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선물로 주어진 은총의 희년에 주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새하얀 백지 위에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덧 저도 인생 지하철 6호선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는 시기를 맞게 되어 예년과 다른 느낌이 듭니다.

희년으로 맞이할 새해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실체를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이며, 노아의 방주가 정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신앙적, 도덕적으로 아쉬웠던 지난 세월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제거하는 회복과 희망이 담겨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도 본당 설립 4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 운동과 함께 성전 대보수를 통해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0의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까 생각해 보

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함께 손잡고 성당을 찾았던 신혼 때의 초심, 함께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통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사연'의 '바람' 노랫말처럼 보다 성숙한 신앙인,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해 보며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않도록 저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 청하며 의탁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물다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건강히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여겨져 주어진 봉사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좀 더 자유로운 순례의 시간들로 채우고 싶은 소박한 희망도 가져 봅니다. 긴 시간 저를 보살펴 주고 알뜰살뜰 채워 준 저의 반쪽 배우자와 함께 사랑의 주님을 사이에 두고 오순도순, 알콩달콩...^^

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소라 아그리피나
인천교구 오정동성당

요한 묵시록 바로 알기 ①

요한 묵시록은 미래의 비밀을 담은 신비로운 책인가요?

1 요한 묵시록은 세상 종말의 비밀을 담은 책이다?

요한 묵시록은 수많은 상징과 비유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해 최근에는 수많은 유사종교들에서 요한 묵시록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기고, 여기에 담긴 비밀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묵시록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마르 13,32,37)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 묵시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과 같기에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요한 묵시록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전해주는 예언의 책이다?

묵시록 1장 3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책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점치고 알리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아가는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 묵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AD 95년경인 저작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세력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

백했지만 이를 방해하는 세상의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있는 우리와 이를 저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 요한 묵시록은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관적이며 무서운 책이다?

묵시문학은 예언서들과 비슷한 듯 보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 예언서의 종말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 등 실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 반면, 묵시문학에서의 종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문학은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하며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시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은 현재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시간 앞에서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종말과 심판은 절대적인 희망과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실제로 요한 묵시록에는 ‘행복합니다’(Μακάριοι)라는 말이 총 7번 나오으로써 충분한 행복을 전하고 있고, 특히 묵시록의 시작과 마침인 1,3과 22,14에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묵시록 전체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관적이며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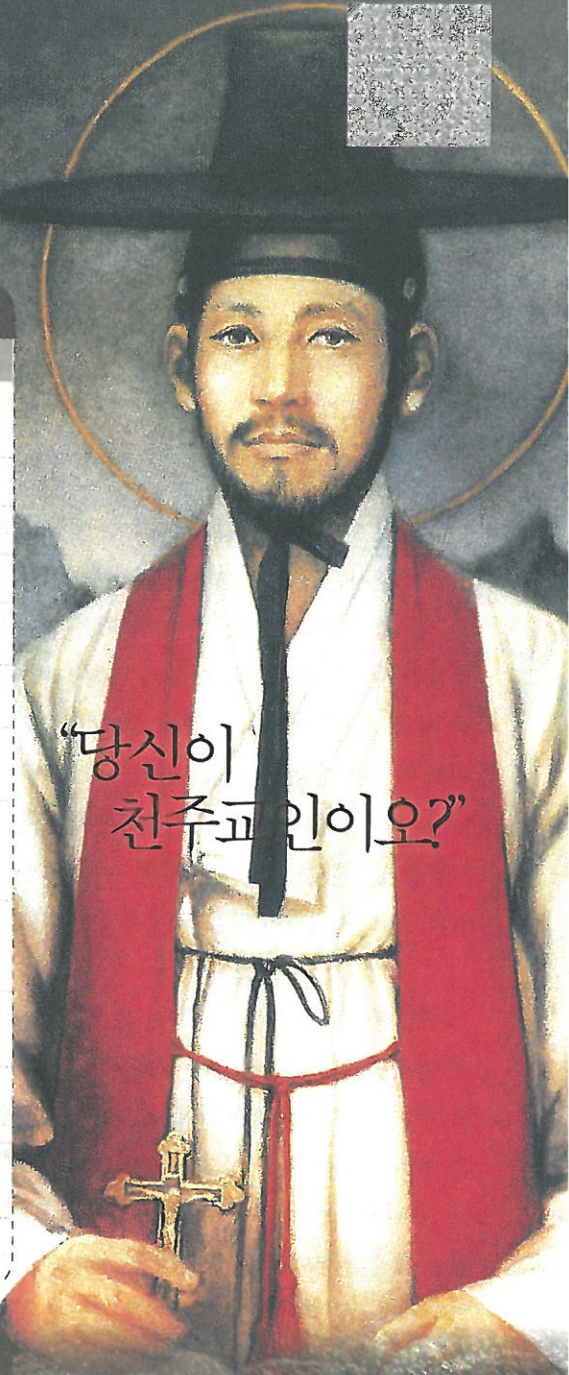
사목국 기획연구팀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주요 행사 ·

주관	행사 구분	기념 행사 내용	일시	장소	
주교회의	개막미사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선포식 및 전대사 선포식	2020년 11월 29일 12시	명동대성당	
	희년 사제대회	사제 성화의 날	2021년 6월 11일	각 교구별	
	폐막미사	희년 폐막미사	2021년 11월 27일	각 교구별	
사목국	성시간	성시간(자료 배포)	매월 첫 목요일	각 본당	
문화 홍보국	거리극	"그 길을 따라서"	2021년 9월 10일~12일	추후 공지	
	뮤지컬	성 김대건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절두산 순교성지	특별 기획 전시	"오랜 기다림, 영원한 동행"	2020년 11월 28일~2021년 11월 27일	한국순교자 박물관	
	상설고해	희년 상설고해소 운영 (화~토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17시)	2020년 11월 28일~2021년 11월 27일	성지 내 상설고해소	
순교자 현양 위원회	도보 성지 순례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첫 사제의 마지막 순교길 걷기	2020년 11월 29일(첫순례) ~ (희년기간중)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길	
	9월 순교 성월	9월 사랑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2021년 9월	천주교 서울 순례길
		한국 순례주간	신앙의 역사 탐방 - 믿음의 뿌리 찾기	2021년 9월 13일~17일	교구 각 성지
		순교자 현양대회	성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 일	2021년 9월 16일	절두산 순교성지
	학술사업	성 김대건 신부님 및 순교자 유해 분포 현황 전수 조사	희년 기간 중	교구 내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

전대사의 통상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을 채우면서, 아래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다.

(1)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 첨부된 희년 주요 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기
- 또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가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바치기

* 서울대교구 교구장 지정 순례 성지(성당)

광희문성지, 주교좌명동대성당, 가회동성당,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지,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종림동약현성당, 동대문성당, 수락산성당, 수유동성당, 신내동성당, 신천동성당, 이문동성당, 한강성당

(2)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기

(3)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분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QR 스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두 해 동안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힘써 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에는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가꾸는 데에 교구의 모든 신자들과 본당 및 기관이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 이 말씀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목표어이기도 합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살이도 커다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올 한해 가정과 본당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에 교구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선교적 자세를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덕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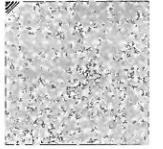
(1)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앙을 선물로 받은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공

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한 미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교구 공동체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변화시켜 참된 선교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2)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은 점점 하느님의 뜻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외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엘리야로부터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는 참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진정한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66항 참조). 하느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 교구 공동체는 참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지지 않는 선교 열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3)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기에 날마다 구원받을 이들이 늘어났습니다(사도 2,42-47 참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받은 사랑을 공동체와 더불어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며 기쁨에 차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장 먼저 자신의 가까운 이들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통하여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구 안에서,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겠습니다.

교구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선교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과 그들이 함께하는 현지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와 처지로 모셔가는 교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제 여러분, 교구장 주교인 저와 일치하는 가운데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35항)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2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동반하고 있는 본당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눈길, 그리고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실까? 주님의 손길은 어떻게 어루만지실까?’를 묻고 실천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실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유한 신분을 통하여 선교에 더욱 충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화를 지향하고 실현하려는 교구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기도생활과 더불어 하느님과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유한 활동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각자의 소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일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됩시다!

신자 여러분,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어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오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라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4,16)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두는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2031년에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증언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

오늘(11월 29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나해'를 따르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구장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영명축일 미사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 축일 미사가 11월 30일(월) 오전 11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됩니다(사제들은 장백의, 홍색영대, 띠 지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우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말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金大建, 1821년 8월 21일~1846년 9월 16일, 세례명: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또한 교황청 내사원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전대사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제 개편

관리국 행정지원팀을 관리국 소속에서 총대리 직속으로 소속 변경하고, 행정점검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시행일: 2020년 12월 1일).

행정점검팀 사제 임명

임) 정영진 신부(사무처장), 김한석 신부(관리국장), 우연호 신부(사무처 행정실장), 권순형 신부(사무처 성직자실장), 태영원 신부(관리국 부국장)

교구청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재개(1252차 미사)
때, 곳: 12월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성경통독 공관복을 피정
때, 곳: 12월3일(목) 12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 강약: 조창수 신부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 황테레사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2월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정지 성미술 초대전: 1, 2, 3 전시실
전시일정: 12월2일(수)~7일(월)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곳: 매일 첫째주(화) 12월1일 · 2021년 1월5일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직장인 금요미사 재개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직장인 금요미사가 다음과 같이 재개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할 시 금요미사 재개하지 않습니다
때, 곳: 12월4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021년 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공모부문: 대학원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접수기간: 12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21년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가톨릭 교리 상식**을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 참여기간 2020년 11월 28일(토)~2020년 12월 31일(목)
-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 접속(cc.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 2021년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여하기 -> 기본 정보(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질문 입력)
-> 이벤트 접수 클릭

*선정된 질문은 2021년 서울주보 코너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게재되며,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4일 자 주보 통해 당첨자 안내 예정)



참여하기 QR 스캔 ▲

**가톨릭
교리 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참여 기간 2020.11.28(토) ~ 2020.12.31(목)

인준단체 일람

모임

대림 속의 마리아 묵상 피정(서울 마리아 학교)
 때, 곳: 12월11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미사 있음, 회비 없음 / 문의(접수): 010-9620-4820

4차 젊은이 몸신학 피정

때: 12월11일(금)~13일(일) 2박3일 / 회비: 8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40세 이하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2월5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자존감 되찾기 피정(바오로센터)

내용: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 지도: 문종원 신부
 때, 곳: 12월12일(토) 10시30분~15시30분, 성바오로수
 도회 본원 바오로센터 / 문의(접수): 010-3251-8400
 회비: 4만5천원(교재·중식 제공) / 대상: 누구나(선착순 30명)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도미니코 피정의 집)

송년 피정	12월27일(일)~29일(화)	문의:
성경완독 피정	12월12일(토)~20일(일)	010-3340-02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12월5일~7일, 12월11일~13일
한라산눈꽃 피정	2021년 1월8일~10일,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4차	12월25일(금)~2021년 1월2일(토)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2020년 12월 서울ME협의회 주말 프로그램

주제: 성숙한 혼인생활을 위해 /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문의: 02)511-9901, 2주말: 금 19시~일 18시 / www.me.or.kr

12월4일~6일	서울 1430차	ME 만남의 집(등촌동)
12월18일~20일	서울 1431차	ME 만남의 집(등촌동)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 / 홈페이지: www.jesumarm.org

예수마음기도	2박3일 12월11일(금)~13일(일), 4박5일 12월11일(금)~15일(화)
이나시오 2박3일	12월11일(금)~13일(일)
영적식별 집중연수	12월4일(금)~6일(일)
내적여정 에니어그램(심화)	12월19일(토)~20일(일)

복음화학교 온라인 피정(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때: 12월12일(토) 오전 10시 / 문의: 02)753-8765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유TV를 검색 한 후
 141기 온라인 피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정선교회 찬양·치유·회복 피정

때: 12월21일 9시30분~13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흥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찬양: 고영민 단장과 순헌회 악기팀
 회비: 1만원(식수 준비) / 문의: 010-6281-8626,
 010-5710-6510, 010-4077-3954, 02)777-1773 대표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때: 12월23일(수) 16시30분~25일(금)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회비: 24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제)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1-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홉카페마스터자격증반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수시 가능 /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신자
 곳: 성공률반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
 대입구역) /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선교사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회람어)

때, 곳: 1월~12월 19시~21시(주1회 2시간), 프란치
 스킨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가톨릭성지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23일~12월7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교무입학처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대상: 중학교 1~2학년 / 회비: 15만원
 때: 2021년 1월8일(금)~10일(일) 2박3일
 곳: 양업고등학교 / 문의: 043)260-5078
 12월22일부터 양업고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겨울진학캠프

대상: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12월5일(토) 14시
겨울진학캠프	2021년 1월9일(토)~10일(일)

2021년 노들담 교리학교 15주 과정(교리교재연구소)

문의: 010-2123-6319(http://cafe.daum.net/ndfirst)

대면	3월15일부터 매주(월) 10시~12시, 노들담교육관
비대면	3월17일부터 매주(수) 19시~21시, Zoom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2021년)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수도자·성직자·양성담당자
 때: 2021년 1월11일(월)~2월5일(금)
 곳: 성공률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성북구) / 문의: 02)953-0613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 모집

모집기간: 2021년 1월7일(목)~11일(월)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
 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사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
 과 모집 / 문의: 033)649-700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자원봉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
 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양상남(남·여 그레고
 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 기타) 등
 접수: 12월4일(금)까지 / http://www.casm.site
 때, 곳: 3개월 수업(12월~2021년 2월), 최양업홀(전철 1·4
 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가르멜센터(가르멜 수도회)

문의: 010-4149-1853, 02)6951-1101(camelcenter.kr)

2021 영성코스 접수	2021년 2월9일~15일(전체 과목)
명사초청 특강	12월11일(금) 13시30분 / 문자 접수
성시간 피정	12월26일(토) 13시30분
청년 피정	12월5일(토) 14시
문화강좌	숲해설·초공예·서예반 수시 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021년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인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1년 1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신학: 위기와 쇠신의 기로에서	(월) 14시~16시	김혜숙박사
칼 융의 분석심리학과 영성	(화) 14시~16시	김정택신부
구약성경 아가페: 여호수아·2월 왕기-위대하시고 새로운 하느님	(화) 19시30분 ~21시	주원준박사
영성의 향기: 현대 영성의 주요 주제들	(수) 14시~16시	심중혁신부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분노조절상담지도사(온라인 과정) 수강 모집 / 문의(접수): 02)2164-6587, 8

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때: 매월 1일 개강, 총 3개월 과정(90시간 이수)
홈페이지: <http://catholic.maumjikim.com/main>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세~21세(고등 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월·5월·9월 입학 가능 /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2월2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12월4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첫 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곳: 12월5일(토) 9시30분~12시(9시30분 켈기도·10시45분 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2)756-347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코로나로 인해 모든 미사 취소 가능·신청자만 참석 가능

1) 첫금요일 예수성심 신심미사
때: 12월4일(금) 19시30분(성시간 18시30분)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서울 세검정)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2)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때, 곳: 12월5일(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12월2일(수)까지 예약 필수 / 문의: 010-4550-6955

인니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형성) / 자체 취사, 개인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알코올중독상담(부천성모병원)
생명신비의상 수상기관
술로 고통받는 이들 위한 8주 재활프로그램
특성화된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회복률
수시상담 가능 / 문의: 032)340-7215, 6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특별전 '오랜 기다림, 영원한 동행'
때, 곳: 11월29일(일)~2021년 11월27일(토), 한국 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 / 사전예약 필수
문의: 02)3142-4505 절두산 순교성지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전문 심리상담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 치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성격), 학교·직장 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	--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작용)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부부갈등문제, 우울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분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 문의: 032)930-8500~3

방화3동성당 연주자 모집
모집 분야: 소프라노, 테너,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오르간 가능) / 활동 내역: 본당미사와 연주회
연주 곡명: Ombra mai fu : Largo di Handel
대상: 가톨릭 신자(또는 예비신자), 학생(또한 대학원생) 환영
봉사료: 유급 / 서류 심사 후 오디션(개별 통보)
12월13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lys9059@naver.com) 접수 / 문의: 02)2661-2234, 5

동작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595-696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성실하고 근면하며, 승합차 운전 가능하신 분(소방안전·가스·전기통신·시설물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업무 / 12월13일까지 우편·방문(우 06559,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72(방배동, 왕실빌딩) 4층) 및 이메일(mschoi6511@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모집

성프란치스코하프양상을 단원 모집
모집파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퍼커션
실력보다는 오래 같이 하실 분 환영합니다
문의: 010-2713-8910

티없으신 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하는 55세 이하 신자
때, 곳: 12월26일(토) 9시30분, 끈벙부알 교육관
문의: 010-8503-0228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
대상: 중1~고2 남녀 학생(2020년 초6학년 포함)
내용: 리더십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접수: 12월13일까지 / 홈페이지(www.stvin.or.kr) 참조
곳: 서울 성빈센트청소년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 / 문의(접수): 02)926-3440, 010-6880-9605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라리움 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수) 19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대상: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 50세 미만 성악전공자 우대 / 활동: 박물관 정기연주회(연 2회 예정), 미사와 행사 성가봉사와 외
문의: 010-3321-1535 지휘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6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10-9937-0901
투스틴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	12월6일(일) 14시	본원(돈암동)	010-8191-0377(www.benedict.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읽는 은총 가득한 대림 시기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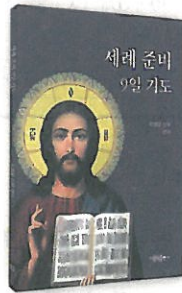
신간 도서

조앤 수녀님의 동물 친구들

베스트셀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수녀의 신작!

조앤 치티스터 지음 | 임정희 옮김 | 13,000원

때로 우리 옆의 작은 친구들은 말없이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영성가인 조앤 치티스터 수녀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깨달게 된 것들을 써내려 간 에세이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 두 마리와 앵무새가 전해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새롭게 만나는 스테디셀러

세례 준비 9일 기도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뜻깊은 선물

이병문 편저 | 4,000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세례성사의 그날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9일 기도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 ◆ ◆ 대림 시기 추천 도서 ◆ ◆ ◆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

희망

“오늘날 신뢰와 희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강대인 옮김 | 8,800원

몹시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묵상집은 희망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30일간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별이 빛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별을 만나다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 최대환 옮김 | 13,000원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따라 길을 떠났듯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른 별은 이제 주님을 향한 여정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동반하는 이 특별한 묵상집과 함께 은총이 가득한 영적 순례를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의 대림 시기

성탄의 기쁨을 깨닫고
평온을 되찾는 4주간

마르쿠스 C. 라이트슈 · 케르스틴 헬트 지음
신동환 옮김 | 8,000원

연말의 들뜬 분위기 때문에 대림 시기를 차분하게 맞이하기 힘들었다면, 올해는 《내 마음의 대림 시기》와 함께해 보세요. 이 책은 대림 시기 동안 매일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도와,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도 희망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윤주현 옮김 | 12,800원

여러분의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번 대림 시기에는 희망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을 엮은 이 책으로 희망에 대해 새롭게 묵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교황님의 메시지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줍니다.

제2158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 4451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체신심미사	매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세레

오늘 16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달력 배부

일시 : 11월 28일(토) 저녁(주일)미사~
11월 29일(일) 저녁 미사까지

장소 : 매 미사 후 교육관 1층 로비에서 배부
방법 : 세대별 1부씩 / 구역, 반, 이름 기입 후 수령
(주일에 수령 못하신 분들은 성당사무실에서 구역, 반, 이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 특강

일시 : 12월 10일(목) 저녁 8시 대성전
강사 :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
주제 :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6일(수) 저녁 7시30분
장소 : 성당 내 7곳 고향실
※ 올해 판공성사는 성사표가 아닌 '바코드카드'를 사용, 성사참석여부를 확인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은 '바코드카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특강 및 판공성사 일정은 코로나19 등 외부여건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2월 3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2분
사전접수 : 이향래 세실리아(010-7752-4976)
회비 : 일만원

◎ 성체 신심 미사 : 12월 4일(금) 오전 10시

◎ 성모 신심 미사 : 12월 5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12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축복식은 6월과 12월에 2회 실시합니다.

◎ 카페하랑에서 판매합니다.

- * 더치커피 300ml 8,000원
- * 최고의 국산재료로 달여만든 과립형 수제한방차 쌍화차 400g 23,000원, 생강차 350g 23,000원
- ※ 판매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교중미사 후
- ※ 평일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6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0. 11. 22.)

총세대	책정세대	미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율
2,197	951	1,246	43.3%	40.7%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0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1월 16일~22일)

진영문 일만원 이지원 일십만원
누 계 869,454,281원

◎ 감사헌금 (11월 16일~22일)

최종태 일십만원 최신행 오만원
정수진 칠만원 김재균 오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익 명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태홍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박명숙 사만원

◎ 우리들의 정성

(은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무금 9,715,000 원
주일헌금 3,285,000 원
리모델링 2차헌금 1,367,000 원